

##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과 유아의 또래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유아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

박 은 아<sup>1)</sup>

전주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아동·청소년상담심리학과

김 연 수<sup>2)</sup>

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과 유아의 또래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J지역 J시와 W군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남 147명, 여 168명)의 어머니 315명과 유아가 다니는 기관의 담임교사 24명을 대상으로 어머니 보고를 통하여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유아의 담임교사 보고를 통해서 유아의 또래유능성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과 정서조절능력 간에, 그리고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과 유아의 또래유능성 간에 부적 상관이 있었다. 둘째,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은 직접적으로 유아의 또래유능성을 낮출 뿐 아니라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을 약화시킴으로써 또래유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유아의 정서조절은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과 유아의 또래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효과가 있었다. 이는 유아기 또래유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유아의 정서조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 뿐만 아니라 양육자의 정서표현 양가성에 대한 개입도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정서표현 양가성, 또래유능성, 정서조절, 유아기

---

\* 본 논문은 박은아의 석사학위논문(2022)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1) 전주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아동·청소년상담심리학과, 석사

2) 교신저자 : 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조교수 (E-mail: yskim17@jj.ac.kr)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또래관계를 잘 형성하고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은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삶에서 핵심적인 능력이다. 특히 유아기는 주로 가족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통해 사회화를 경험하던 것에서 벗어나, 가정 밖에서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 수평적이고 상호협력적인 사회화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기이다(Hartup & Moore, 1990; Kostelnik, Whiren, Soderman, Stein, & Gregory, 2002; Kupersmidt & Dodge, 2004). 유아기 또래유능성은 학령기 학교생활 적응(Amato & Fowler, 2002)과 성인기 성공적인 대인관계(Crick, 1996) 등 유아기 이후의 발달적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성공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유아들은 자아존중감이 높고 친사회적 행동을 빈번하게 하며(박주희, 이은혜, 2001), 사회적 관계에서 문제해결력이 높다(Crick, 1996). 반면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형성에 실패하는 것은 다양한 사회·정서적 부적응을 예측한다(박주희, 이은혜, 2001). 또래유능성이 낮은 유아는 또래집단에 수용되지 못하며, 자신의 의견만을 지나치게 주장하고 강요하여 갈등을 유발하고 또래를 괴롭히는 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집단과 어울리지 못한 유아는 대인관계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기회가 줄어들고(이지희, 문혁준, 2010), 또래 수용과 인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손승희, 2002). 요컨대 가

정을 벗어나 보다 확장된 사회적 맥락에 적응해야 하는 유아에게 신체적, 심리적 발달 수준이 유사한 또래와 원활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또래유능성은 개인의 사회화 과정에서 핵심적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유아기 또래유능성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여러 연구자들은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탐색하여 왔다.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요인으로는 유아의 기질(이승미, 2015; 차원경, 2014), 자아존중감(박민지, 김민진, 2016; 임현주, 2018), 정서조절(노진형, 2014; 송순옥, 2021)을 들 수 있다. 한편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외적 환경 요인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김현나, 이경남, 2008; 권연희, 박경자, 2003; 박지영, 강성단, 권경숙, 2010; 정지나, 2006)과 또래관계 관리 전략(이지희, 문혁준, 2010), 부모의 정서표현(나은영, 2017; 이승미, 2015; 한지현, 나은영, 이진숙, 2018) 등이 있다. 이 중 부모의 정서표현은 부모 개인의 감정 표출 뿐 아니라 타인의 정서 상태를 파악하여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모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부모의 정서표현은 유아가 타인의 정서 반응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능력과 관련이 깊으며 어떤 유형, 어떤 강도의 정서표현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적절하고 효과적인지에 대한 유아의 믿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배민정, 정윤경, 2015; King & Emmons, 1990; Wong, McElwain, & Halberstadt, 2009). 그리고 유아들은 이러한 믿음을 기반으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면서 스스로의 정서를 적절히 표현하기

도 하고 조절하기도 한다. 이처럼 아동이 다른 사람의 자신에 대한 정서적 반응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함으로써 정서에 대해 학습하고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어머니는 큰 역할을 한다. Denham, Bassett과 Wyatt(2015)는 정서사회화 모델(emotional socialization model)에서 어머니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아동의 정서를 사회화시킨다고 하였는데, 어머니는 자녀에게 정서적 표현의 모델을 제공하고, 모아 상호작용 과정에서 아동의 정서를 격려하거나 억제하는 방식으로 아동의 정서에 수반적으로 반응하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정서에 대해 대화하고 이야기함으로써 정서 코치의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였다. 즉 모델링(modeling), 수반적 반응(contingent reaction), 코칭(teaching/coaching)은 양육자가 아동의 정서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방식은 아동의 정서 이해와 정서 표현에 변화를 가져오며 더 나아가 정서 조절능력과 사회적 유능성의 변화로 이어진다. 요컨대 Denham 등(2015)의 이론적 모델을 포함하여 여러 연구를 통해 부모의 정서 표현과 유아의 정서 발달 간에는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한다는 점이 밝혀져 왔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 중 하나로 정서표현 양가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김정미, 김광웅, 2018; 배민정, 정윤경, 2015; 정호영, 최은실, 2020; 한소현, 2020). 정서표현 양가성(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이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억제하며 갈등하는 것으로 정의된다(King & Emmons, 1990). 즉, 자신의 정서

를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이를 억제하고 고민하며 갈등하고 정서적 표현을 하더라도 그 행동에 대해 후회하는 것을 말한다. 정서표현이 양가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정서를 빈번하게 느끼고, 삶의 만족도 및 자기존중감이 낮으며(King & Emmons, 1990), 스트레스(최해연, 민경환, 2007)를 빈번하게 경험하고 스트레스에 대해서 역기능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Sarason et al., 1991). 또한 정서표현 양가성 경향이 높은 사람은 직접적인 방식으로 솔직하게 의사소통하지 못하고 긍정적인 정서표현 빈도가 낮으며 무엇보다 언어적 및 비언어적 의사소통 간의 일치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Mongrain & Vetteese, 2003). 이를 종합하면 정서표현 양가성은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한소현, 2020). 특히 양육자의 정서표현 양가성은 개인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녀의 문제행동과도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어 왔다(김미라, 강지현, 2012; 배민정, 정윤경, 2015; 정호영, 최은실, 2020). 예컨대 배민정과 정윤경(2015)은 만 4-7세 유아의 어머니 321명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을수록 유아의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행동이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정호영과 최은실(2020)도 만 3-5세 유아의 어머니 309명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은 유아의 외현화, 내재화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양육자의 역기능적 정서 표현인 정서표현 양가성과 유아의 문제행동 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최근 몇몇 연구에서 양육자의 정서표현 양가성이 유아의 문제행동 뿐 아니라 유아의 또래유능성과도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었다(김정미, 김광웅, 2018; 박완순, 2015). 김정미와 김광웅(2018)은 만 3-5세 유아 3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어머니, 아버지, 교사로부터 수집된 부모의 정서표현 양가성과 긍정적 정서표현, 유아의 또래유능성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의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을수록 유아의 또래유능성 수준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이 연구에서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은 아버지의 정서표현 양가성 보다 유아 자녀의 또래유능성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차적 양육자인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은 경우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더욱 많이 보이고(박진성, 2012) 자녀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아들은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원활하게 의사소통하는 방법이나 갈등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또래유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Denham 등(2015)의 정서사회화 모델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은 어머니는 유아의 정서사회화에 있어 적절한 정서적 표현의 모델을 제공하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억제하는 방식으로 아동의 정서에 반응하며, 자신의 특정 정서를 표현하는 것을 억압함에 따라 자녀와 이야기 나누는 것을 꺼림으로써 적절한 정서 코치의 역할을 하지 못 할 수 있다. 유아의 정서사회화에서의 문제는

또래유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경로를 명확히 밝힌 연구는 아직까지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한편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은 유아의 또래관계 뿐만 아니라 정서조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나은영, 2017; 한소현, 2020). 정서조절능력이란 정서적으로 자극이 되는 상황에서 환경적 요구에 맞게 반응하고 적응적이며 유연하게 대응하는 유아의 내적 특성으로서(Cole, Martin, & Dennis, 2004; Eisenberg & Morris, 2002), 자신의 의지로 정서와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뜻한다. 나은영(2017)은 만 3-5세 유아 342명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을수록 유아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는 기능적 정서조절 점수는 낮아지는 반면, 분노를 유발하는 공격적 상황에서 정서적 강도가 적절하게 조절되지 못하는 역기능적 정서조절 점수는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한소현(2020)도 3-5세 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 357명을 대상으로 정서표현 양가성과 정서조절 간 관련성을 알아본 결과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은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하면 유아는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상황에서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하거나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은 어머니는 정서를 이해하고 적절한 강도로 반응하는 데 실패하며 이러한 경험이 누적됨에 따라 유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정서를 조절하는 능

력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정서조절능력은 어머니와의 관계 뿐 아니라 또래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형성, 유지하는 데 중요한 변인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러 연구(박완순, 2015; 허애수, 2003)에서 유아의 정서조절과 또래유능성 간 밀접한 관련성이 보고되어 왔다. 유아가 사회 속에서 관계를 맺으며 잘 발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고 이해하며 조절하면서 다른 사람의 정서에 반응하는 정서능력(emotional competence)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여 타인의 정서에 맞춰 행동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정서조절능력은 또래유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다(허애수, 2003).

앞서 언급한 여러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면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 및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 두 변인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렇게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및 유아의 또래유능성 간의 관련성이 시사됨에도 불구하고, 이 세 변인 간 관련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드물고 현재까지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을 고려하여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살펴본 연구는 제한적이다. 또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 또래유능성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은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과 유아의 또래유능성과의 관련성을 알아 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과 유아의 또래유능성과의 관계에서 유아의 정서조절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탐색해 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유아의 또래유능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과 유아의 또래유능성의 관계에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아의 정서사회화 과정에서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이 어떤 경로를 통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및 유아의 또래유능성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과 유아의 또래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매개 효과가 존재하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J지역 J시와 W군에 소재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의 어머니 340명과 유아가 다니는 기관의 담임교사 24명이었다. 유아의 또래유능성,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측정하였는데, 유아의 또래유능성은 유아의 담임교사 보고를 통해서, 어머니의 정서

표현 양가성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대상 유아의 어머니 보고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배부된 총 340부의 설문 중 회수된 315부의 자료를 결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의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어머니 보고에 따르면 대상 유

아의 성별은 여아 168명(53.3%), 남아 147명(46.7%)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만 3세 122명(37.7%), 만 4세 97명(30.8%), 만 5세 96명(30.5%)이었다. 어머니의 연령은 30대가 194명(61.6%)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이상이 106명(33.7%), 20대는 15명(4.8%)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유아와 어머니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 = 315)

| 구분          |              | 빈도(n) | 비율(%) |
|-------------|--------------|-------|-------|
| 유아의 성별      | 여아           | 168   | 53.3% |
|             | 남아           | 147   | 46.7% |
| 유아의 연령      | 만 3세         | 122   | 38.7% |
|             | 만 4세         | 97    | 30.8% |
|             | 만 5세         | 96    | 30.5% |
| 대상 유아의 출생순위 | 외동           | 56    | 17.8% |
|             | 첫째           | 111   | 35.2% |
|             | 둘째           | 114   | 36.2% |
|             | 셋째           | 34    | 10.8% |
| 어머니의 연령     | 20대          | 15    | 4.8%  |
|             | 30대          | 194   | 61.6% |
|             | 40대 이상       | 106   | 33.7% |
| 어머니의 교육 수준  | 고등학교 졸업      | 64    | 20.3% |
|             | 2,3년제 대학교 졸업 | 97    | 30.8% |
|             | 4년제 대학교 졸업   | 135   | 42.9% |
|             | 대학원 재학       | 4     | 1.3%  |
|             | 대학원 졸업       | 15    | 4.8%  |
| 어머니의 직업     | 가정주부         | 126   | 40.0% |
|             | 전문기술직        | 64    | 20.3% |
|             | 사무직          | 56    | 17.8% |
|             | 판매 서비스직      | 30    | 9.5%  |
|             | 생산직          | 5     | 1.6%  |
|             | 기타           | 34    | 10.8% |

표 2. 교사의 일반적인 특성

(N = 24)

| 구분           |              | 빈도( <i>n</i> ) | 비율(%)  |
|--------------|--------------|----------------|--------|
| 연령           | 20대          | 10             | 41.7%  |
|              | 30대          | 8              | 33.3%  |
|              | 40대          | 5              | 20.8%  |
|              | 50대          | 1              | 4.2%   |
| 성별           | 여자           | 24             | 100.0% |
|              | 남자           | 0              | 0.0%   |
| 학력           | 2,3년제 대학교 졸업 | 15             | 62.5%  |
|              | 4년제 대학교 졸업   | 9              | 37.5%  |
| 자격<br>(중복응답) | 보육교사 1급      | 12             | 50.0%  |
|              | 보육교사 2급      | 12             | 50.0%  |
|              | 유치원 1급 정교사   | 1              | 4.2%   |
|              | 유치원 2급 정교사   | 16             | 66.7%  |
| 전공           | 유아교육학        | 18             | 75.0%  |
|              | 보육학          | 2              | 8.3%   |
|              | 아동학          | 3              | 12.5%  |
|              | 기타           | 1              | 4.2%   |

교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교사의 연령은 20대 10명(41.7%), 30대 8명(33.3%), 40대 5명(20.8%), 50대 1명(4.2%)이었다. 성별은 24명(100%) 모두 여성이었다.

## 2. 측정도구

###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은 King과 Emmons (1990)가 개발하고 최해연과 민경환(2007)이 번역한 정서표현의 양가성 척도(AEQ)를 통해 측정되었다. 이 척도의 하위요인은 자기 방어적 양가성(13문항)과 관계관계적 양가성(8문항)으

로, 총 2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 방어적 양가성은 정서표현에 대해 자신이 느끼는 정서를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억제하는 ‘자기 방어적’ 동기를 포함하고 있고, 관계관계적 양가성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지나치게 고려하거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정서를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행동을 통제하고 갈등함을 의미한다. 자기방어적 양가성을 측정하는 문항의 예로는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지만 그로 인해 나 자신이 당황하게 되거나 상처받게 될까 걱정된다’가 있다. 또한 관계관계적 양가성을 측정하는 문항의 예로는 ‘누군가에

게 화를 내고 나면, 그것이 계속 마음에 걸린다'를 들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자기 방어적 양가성 .88, 관계관여적 양가성 .77, 전체 .88이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두 척도 간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 $r = .51, p < .01$ ) 이후 분석에서 단일 요인으로 사용하였다.

###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Shields와 Cicchetti(1997)의 The Emotion Regulation Checklist(ERC)를 한국 실정에 맞게 변안한 척도(김지윤, 도현심, 김민정, 2008)를 사용하였다.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능적 정서조절 9문항과 역기능적 정서조절 15문항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이다. 기능적 정서조절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역기능적 정서조절의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 유발과 공격적 상황에서 기분이 쉽게 변하여 정서적 강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기능적 정서조절 문항의 예로는 '자신의 요구가 바로 충족되지 않아도 충족될 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다'를, 역기능적 정서조절 문항의 예로는 '폭발하듯이 화를 내며 쉽게 짜증내는 경향이 있다'가 있다. 기능적 정서조절과 역기능적 정서조절 간 부적 상관이 나타났는데( $r = -.57, p < .01$ ), 본 연구에서

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하위요인 중 역기능적 정서조절의 문항을 역코딩하여 기능적 정서조절 요인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가 정서조절을 잘 하는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기능적 정서조절 .73, 역기능적 정서조절 .85, 전체 .88이었다.

### 유아의 또래유능성

유아의 또래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박주희와 이은혜(2001)가 개발한 취학 전 유아용 또래유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위요인은 친사회성, 사교성, 주도성의 3개 영역이었다. 친사회성(5문항)은 다른 또래를 잘 도와주고 사이좋게 지내면서 갈등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사교성(5문항)은 또래 집단에 잘 수용되고 여러 또래와 두루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주도성(5문항)은 또래집단에서의 놀이나 활동을 능동적으로 제안하고 이끌어 가며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Likert 척도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친사회성의 문항 예로는 '다른 아이에게 양보를 잘 한다', 사교성의 문항 예로는 '다른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다', 주도성의 문항 예로는 '다른 아이들과의 놀이나 활동을 주도한다'를 들 수 있다. 친사회성, 사교성, 주도성의 세 변인 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관찰되었다( $r = .40 \sim .72, p < .05$ ). 본 연구에서는 교사가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관계가 유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사교성

.90, 친사회성 .88, 주도성 .88, 전체 .92로 나타났다.

###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자료 수집 전에 연구자들이 소속된 기관의 생명윤리 위원회 승인을 받았으며(gjIRB-210514-HR-2021-0512), 자료 수집은 2021년 6월 21일부터 7월 9일까지 J지역 J시와 W군에 소재한 어린이집 3개와 유치원 1개 기관을 임의로 선정, 만 3-5세 유아 340명의 어머니와 유아의 담임교사 24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자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기관장과 교사에게 연구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모집 문건을 각 기관 게시판에 게시하여 연구대상자를 모집하였으며, 자료는 연구대상자가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후 수집되었다. 유아의 어머니와 담임교사가 모두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 유아의 어머니에게는 어머니용 설문 링크가, 담임교사에게는 교사용 설문 링크가 발송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각각 해당 링크를 통해 온라인 설문에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6.0과 SPSS PROCESS Macro 3.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연구 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통계분석을 하였으며 측정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여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주요 변인 간 상관을 파악하기 위한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과 유아의 또래유능성 간에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4번 모델을 사용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 III. 결과 및 해석

### 1. 주요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과 같다.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은 2.71( $SD = .54$ )이며,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3.76( $SD = .47$ ), 유아의 또래유능성은 3.41( $SD = .61$ )이었다.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왜도는 .01 ~ .14였으며 첨도는 -.22 ~ -.20이었다. 왜도는 절댓값 2를, 첨도는 절댓값 7을 넘지 않아 정규성 가정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3. 주요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 $N = 315$ )

| 변인            | $M$  | $SD$ | 왜도  | 첨도   |
|---------------|------|------|-----|------|
|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 | 2.71 | .54  | .14 | -.22 |
|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 3.75 | .47  | .02 | -.20 |
| 유아의 또래유능성     | 3.41 | .61  | .01 | -.20 |

## 2.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및 유아의 또래유능성 간의 상관관계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및 유아의 또래유능성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 참조).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r = -.35, p < .01$ ), 유아의 또래유능성( $r = -.35, p < .01$ )과 각각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유아의 또래유능성( $r = .52, p < .01$ )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 3.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과 유아의 또래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 검증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과 유아의 또래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Hayes(2013)가 제안한 SPSS의 Process Macro Model 4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에 따른 결과는 표 5와 표 6에 제시하였으며, 연구 모형 검증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표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B =$

표 4.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

(N = 315)

| 변인              | 1      | 2     | 3 |
|-----------------|--------|-------|---|
| 1.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 | 1      |       |   |
| 2.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 -.35** | 1     |   |
| 3. 유아의 또래유능성    | -.35** | .52** | 1 |

\*\*  $p < .01$ .

표 5.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과 유아의 또래유능성의 관계에서 유아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

| 변인           |               | B    | se  | t        | 95% CI |      |
|--------------|---------------|------|-----|----------|--------|------|
|              |               |      |     |          | LL*    | UL** |
|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 | →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 -.31 | .05 | -6.70*** | -.40   | -.22 |
|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 | → 유아의 또래유능성   | -.22 | .06 | -3.82*** | -.33   | -.11 |
|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 → 유아의 또래유능성   | .59  | .07 | 9.02***  | .46    | .72  |

주. \* LL=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 UL=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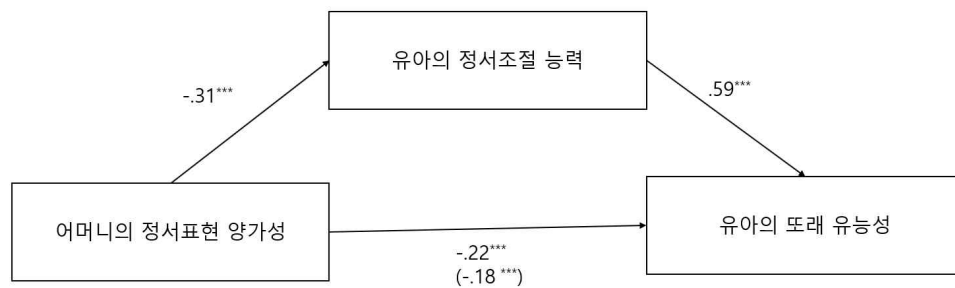
\*\*\*  $p < .001$ .

표 6. 주요 변인의 총효과,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 $N = 315$ )

|      | $B$  | $se$ | $t$      | 95% CI |      |
|------|------|------|----------|--------|------|
|      |      |      |          | LL     | UL   |
| 총효과  | -.40 | .07  | -9.02*** | -.72   | -.46 |
| 직접효과 | -.22 | .06  | -6.70*** | -.40   | -.22 |
| 간접효과 | -.18 | .04  | -3.81*** | -.27   | -.11 |

\*\*\*  $p < .001$ .



\*\*\*  $p < .001$ .

그림 1. 연구모형 검증결과

-.31,  $t = -6.70$ ,  $p < .001$ )과 유아의 또래유능성( $B = -.22$ ,  $se = .06$ ,  $t = -3.82$ ,  $p < .001$ )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유아의 또래유능성( $B = .59$ ,  $se = .07$ ,  $t = 9.02$ ,  $p < .001$ )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을 때 유아는 정서조절을 잘 못하고 또래유능성도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B = -.22$ ,  $se = .06$ ,  $t = -3.82$ ,  $p < .001$ ),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추가되었을 때에는 그 영향력이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B = -.18$ ,  $se = .04$ ,  $t = -3.81$ ,  $p < .001$ ). 따라서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과 유아의 또래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유의미한 부분매개효과가 있었다.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을 사용하였다(Shrout & Bolger, 2002).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경유하여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이르는 경로의 부분매개를 5,000번 반복 추출하여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이 유아의 정서조절을 통

표 7. 간접효과에 대한 bootstrapping 결과

| 매개변수        | 간접효과 | se  | 95% 신뢰구간 |        |
|-------------|------|-----|----------|--------|
|             |      |     | BootLL   | BootUL |
|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 -.18 | .04 | -.27     | -.11   |

하여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이르는 경로의 경우 간접효과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 = -.18$ ,  $se = .04$ , 95% CI = [-.27, -.11]).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이 유아의 또래유능성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및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유아의 또래유능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간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과 유아의 또래유능성 간에도 부적 상관이 있었다. 이는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과 정서조절 간 부적 상관을 보고한 나은영(2017), 한소현(202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은 어머니는 자신이 느끼는 정서를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고 무조건 억제하며 갈등하는데, 특히 부정적인 정서에 대해서는

무조건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 정서조절에 있어 분노나 공포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유발되는 상황에서 그 강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Eisenberg & Morris, 2002),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서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융통성 있는 조절 방법을 관찰·학습하지 못한 유아들은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고 적절한 강도로 반응하는 데 실패하고 이러한 경험이 누적됨에 따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적절한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과 유아의 또래유능성 간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연구들(김정미, 김광웅, 2018; 박완순, 2015)과 일관된다. 김정미와 김광웅의 연구(2018)에서는 일차적 양육자인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이 자녀의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은 어머니는 사회적 관계에서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더욱 많이 보이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갈등을 빈번하게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유아 역시 또래와의 관계에서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거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또래유능성이 낮은 경향이 있었다.

둘째,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과 유아의 또래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매개 여부를 확인한 결과, 유의미한 매

개효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을 때 유아는 정서를 잘 조절하지 못하고 또래유능성도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동시에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은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추가되었을 때 그 영향력이 감소되었다. 요컨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과 유아의 또래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은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유아의 정서조절을 통해서 또래유능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을수록 유아가 분노 유발과 같은 부정적 상황에서도 부정 정서 강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는 등 정서조절이 감소되었으며 유아의 또래유능성도 감소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직접적으로 검증되지는 못했지만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및 정서조절과 관련된다는 연구 결과(Belsky, 1984)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또한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유아의 정서조절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송서정의 연구(2009)와도 일관된다.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유아기 또래유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유아의 개인적 변인인 정서조절을 향상시키도록 도와주는 것 뿐만 아니라 양육자 변인인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에 대한 개입도 필요함을 시사한다. 어

머니 개인의 정서표현에 대한 혼란과 갈등이 자칫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의 갈등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어머니의 정서표현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부모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동시에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을 때 유아가 정서조절을 잘하지 못하고 또래유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어머니와 유아 모두에 대한 정서코칭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과 유아의 또래유능성 간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두 변인 간 관련성에서 유아 정서조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기존의 연구(배민정, 정윤경, 2015; 정호영, 최은실, 2020)에서는 어머니 정서표현 양가성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주로 연구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문제행동 뿐 아니라 유아의 또래유능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녀의 발달 영역에 대한 지식이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과 유아기 또래유능성 간의 관련성,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과 유아기 정서조절 간의 관련성 등 변인 간 부분적 관련성을 밝힌 선행연구(김정미, 김광웅, 2018; 나은영, 2017; 박완순, 2015)에서 더 나아가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이 유아의 정서조절을 통해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실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J지역 J시와 W군 등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만 3-5세 유아의 어머니

와 교사였다. 표집이 특정 지역에 한정되고 전국 규모로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나라의 전체 어머니와 유아에게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대상 지역을 넓히는 등 다양화하고 세분화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자료를 어머니의 설문을 통해 수집하였다. 어머니의 응답에 전적으로 의존하였으므로 어머니들이 설문에 응답할 때 사회적 통념상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행동에 응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 질문지를 통한 자료수집 방법 뿐 아니라 실험상황에서의 유아 행동에 대한 직접 관찰 등 다양하고 심층적인 방법이 함께 사용된다면 보다 신뢰성이 높은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대한 자료를 교사평정을 통해 수집하였는데 자료 수집 이전에 평정자간 신뢰도를 확인하는 절차가 누락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교사평정 이전에 또래유능성 평정에 대한 평정훈련을 실시하여 평정자간 신뢰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주 양육자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최근 맞벌이 가정의 증가에 따라 과거에 비해 양육에서 아버지의 역할과 참여가 강조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어머니 외의 다른 양육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예컨대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에 따라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 정도가 다를 것으로 예상되며, 부모의 성별에 따른 정서표현 양가성의 차이를 비교하여 결과적으로 유

아의 또래유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양육자의 정서표현 양가성이 어떤 경로로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넷째,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이라는 심리적·역동적 특성이 유아의 정서 및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본 연구에서 입증된 것 이상으로 복잡한 과정이며 보다 다양한 관련 변인들도 포함시켜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변인을 통제하여 탐색할 필요가 있다.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과 유아의 또래유능성 간 관계에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부분 매개한다는 본 연구 결과 역시 이러한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정서사회화에 있어서 영역을 정서 이해, 정서 표현, 정서 조절 등으로 보다 세분화하고,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이 양육태도 및 양육 행동을 통해 유아의 정서 발달에 미치는 경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기제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권연희, 박경자 (2003). 아동의 정서성 및 어머니 행동과 또래 수용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4), 23-38.
- 김미라, 강지현 (2012).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정서수용태도. *상담*

- 학연구, 13(6), 2803-2820.
- 김정미, 김광웅 (2018). 어머니와 아버지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정서표현 양가성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9(4), 121-136.  
<https://doi.org/10.22143/HSS21.9.4.10>
- 김지윤, 도현심, 김민정 (2008). 부부갈등과 유아의 기질 및 정서조절능력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5), 133-150.
- 김현나, 이경남 (2008). 성별에 따른 유아의 기질, 정서조절능력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유아의 또래유능성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3(5), 71-92.
- 나은영 (2017). 어머니의 정서표현 및 정서표현 양가성, 유아의 정서조절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진형 (2014).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정서조절능력이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8(3), 185-206.
- 박민지, 김민진 (2016). 또래 유능성, 자아존중감, 교사-유아관계와 유아 행복간의 구조관계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20(1), 217-240.
- 박완순 (2015).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주희, 이은혜 (2001). 취학 전 아동용 또래유능성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 221-232.
- 박지영, 강성단, 권경숙 (2010). 유아의 기질, 또래유능성,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4), 139-162.
- 박진성 (2012).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관한 연구: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을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16(5), 253-272.
- 배민정, 정윤경 (2015).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이 양육태도와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2), 159-174.
- 손승희 (2002). 어머니 양육행동 및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과 또래유능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서정 (2009). 어머니의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및 사회적 능력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순옥 (2021). 유아의 창의적 인성 및 정서조절능력이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력. *인문사회* 21, 12(2), 2557-2569.  
<https://doi.org/10.22143/HSS21.12.2.180>
- 이승미 (2015).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희, 문혁준 (2010).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외적 요인에 대한 구조 분석. *아동학회지*, 31(3), 17-32.
- 임현주 (2018). 유아의 자아존중감, 또래놀이 상호작용 군집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다변량분석. *유아교육연구*, 38(3), 215-236.  
<https://doi.org/10.18023/kjece.2018.38.3.009>
- 정지나 (2006).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또래유능성: 유아 내적표상의 매개효과 검증.

-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호영, 최은실 (2020).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따른 매개효과. *열린부모교육연구*, 12(4), 51-70.  
<https://doi.org/10.36431/JPE.12.4.3>
- 차원경 (2014). 유아의 기질과 또래유능성,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해연, 민경환 (2007). 한국판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 척도의 타당화 및 억제 개념들 간의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71-89.
- 한소현 (2020).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정서수용태도를 매개 변인으로 하여. 가천대학교 특수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지현, 나은영, 이진숙 (2018). 어머니의 긍정적·부정적 정서표현과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및 문제행동에 대한 구조모형분석. *인간발달연구* 25(4), 237-256.  
<https://doi.org/10.15284/kjhd.2018.25.4.237>
- 허애수 (2003).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 및 아동의 정서조절력과 또래유능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mato, P. R., & Fowler, F. (2002). Parenting practices, child adjustment, and family diversit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3), 703-716.  
<https://doi.org/10.1111/j.1741-3737.2002.00703.x>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96. <https://doi.org/10.2307/1129836>
- Cole, P. M., Martin, S. E., & Dennis, T. A. (2004). Emotion regulation as a scientific construct: Methodological challenges and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research. *Child Development*, 75(2), 317-333.  
<https://doi.org/10.1111/j.1467-8624.2004.00673.x>
- Crick, N. R. (1996). The role of overt aggression, relational aggression, and prosocial behavior in children's future soci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5), 2317-2327.  
<https://doi.org/10.1111/j.1467-8624.1996.tb01859.x>
- Denham, S. A., Bassett, H. H., & Wyatt, T. (2015). The socialization of emotional competence. In J. E. Grusec & P. D. Hastings (Eds.),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pp. 590-613). The Guilford Press.
- Eisenberg, N., & Morris, A. S. (2002). Children's emotion-related regulation. In R. V. Kail (Ed.), *Advances in child development and behavior* (Vol. 30., pp. 189-229). Academic Press.
- Hartup, W. W., & Moore, S. C. (1990). Early peer relations: Developmental significance and prognostic implication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5(1), 1-17.  
[https://doi.org/10.1016/0885-2006\(90\)90002-I](https://doi.org/10.1016/0885-2006(90)90002-I)
- Hayes, A. F. (2013).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Guilford Publications, 120.
- King, L. A., & Emmons, R. A. (1990).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Psychological a

- phys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58(5), 864-877.  
<https://doi.org/10.1037/0022-3514.58.5.864>
- Kostelnik, M. J., Whiren, A. P., Soderman, A. K., Stein, L. C., & Gregory, K. (2002). *Guiding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Theory to practice*. NY: Delmar/Thomson Learning.
- Kupersmidt, J. B., & Dodge, K. A. (2004). *Children's peer relations: From development to intervent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Mongrain, M., & Vettease, L. C. (2003).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Implications for interpersonal communic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4), 545-555.  
<https://doi.org/10.1177/0146167202250924>
- Sarason, B. R., Pierce, G. R., Shearin, E. N., Sarason, I. G., Waltz, J. A., & Poppe, L. (1991).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working models of self and actual 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2), 273-287.  
<https://doi.org/10.1177/0146167202250924>
- Shields, A., & Cicchetti, D. (1997). Emotion regulation among maltreated childre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new criterion Q-Sort scale. *Developmental Psychology*, 33(6), 906-916.  
<https://doi.org/10.1037/0012-1649.33.6.906>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https://doi.org/10.1037/1082-989X.7.4.422>
- Wong, M. S., McElwain, N. L., & Halberstadt, A. G. (2009). Parent, family, and child characteristics: Associations with mother-and father-reported emotion socialization practic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3(4), 452-463.  
<https://doi.org/10.1037/a0015552>

1 차원고접수 : 2022. 01. 09.

수정원고접수 : 2022. 02. 15.

최종게재결정 : 2022. 03. 23.

## **The Mediating Effect of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Peer Competence during Early childhood**

**Park, Eun A<sup>1)</sup>**

**Kim, Yeonsoo<sup>2)</sup>**

<sup>1)</sup>Dept. of Child and Adolescent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Jeonju University

<sup>2)</sup>Dept. of Counseling Psychology, Jeonj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between mothers' emotional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peer competence during early childhood. A total of 315 mothers of preschoolers (3-5 years; 147 males, 168 females) completed questionnaires including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EQ) and their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ERC). Also, 24 teachers at child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completed peer competence of preschoolers.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mother's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However,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peer competence. Second, mothers'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both on emotional regulation and on peer competence of preschoolers. Also,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Mothers who experience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tended to be less affectionate and their children tended to have lower peer competence, suggesting that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mediates between mother's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their children's peer competence. Study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are discussed.

*Keywords: emotional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peer competence, emotional regulation, early childhood*